

제작비 못 줘 이미지 먹칠한 디자인비엔날레



용역업체 C사 4곳 1억 체불...“디자인센터가 지금 미뤄”

“대학생들 임금도 못줬다” 지역업체·작가들 대책 호소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 용역을 수행한 일부 지역 업체와 작가가 1억원이 넘는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광주만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서 임금체불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여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광주시의회 김보현 의원이 “50억원이 투입되는 디자인비엔날레에서 지역 디자인기업과 디자인협회의 참여가 전무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상황에서 그나마 참여했던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행사 개최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A사와 B작가, 광주디자인센터 등에 파

르며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산업화 프로젝트 전시 실행 용역업체인 서울의 C사가 모두 4곳의 업체·작가에게 1억원이 넘는 작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6월 입찰 공고를 통해 C사를 전시 실행 용역업체로 선정, 지난 8월 13억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C업체는 작품 설치, 보수, 운송 등 전시 전반을 담당했다.

당시 C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품을 제작한 A사와 B작가는 당초 지난 9월19일까지 각각 7000만원, 3480만원 상당의 작품 대금을 C사로부터 받기로 계약했었다.

B작가는 “6월에 견적서를 보냈고, 이번 행사 작품 중에서 가장 먼저 설치를 끝냈는데도 아직까지 돈 한푼 받지 못했다”며 “20일 넘게 함께 작품을 설치한 대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C사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

지만 국제행사를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지역 작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어떤 지역 업체들이 행사를 돕기 위해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A업체도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를 돕기 위해 해 뒤늦은 작품 설치 요청에도 다른 일은 제쳐두고 서둘러 공사를 마쳤다”며 “회사가 되레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C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용역을 총괄한 C사는 디자인센터 측으로부터 계약 금액을 모두 받지 못해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계약을 맺으면서 디자인비엔날레 개막(9월6일) 이후 14일 내에 전체 계약 금액의 90%를 받기로 했지만 이날까지 70%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 이 업체는 광주비엔날레재단과도 6억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고, 이날까지 60%가량의 돈을 받았다.

C사 대표는 “행사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용역계약을 맺는 바람에 전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막상 디자인센터측이 서류가 미비하다 등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면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대형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촉박하게 계약을 맺고,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디자인센터는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의 서류가 미비해 행정 절차상 약속한 금액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디자인센터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디자인비엔날레 후속 사업인 디자인산업화 프로젝트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이 디자인센터의 용역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디자인센터 관계자는 “모두 4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해당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부족해 보완요구를 해놓은 상황”이라며 “주로 지역 업체들이 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음악 선생님들의 ‘사운드 오브 뮤직’

전남교육음악회, 25일 목포시민문화체육관

마리아의 사랑 노래가 폰트랩 대령 가족의 행복을 이끌었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음악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전남지역 중·고교 음악교사들이 펼치는 가족 뮤지컬 ‘The Sound of music’. 전남교육 음악회 제10회 기념 공연으로 열리게 되는 음악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7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자연을 3D 영상으로 제작한 환상적인 무대와 ‘에델바이스’, ‘도레미송’, ‘My Favorite Things’ 등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음악을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1년차 새내기부터 30년 경력의 음악교사 등 50여명이 연주자와 스태프로 참여하고, 폰트랩가 자녀들의 역할은 광주교육목 목포부설초교 어린이 6명이 맡았다. 임희숙(여수여중 교장) 총감독과 최영화(호남대 교수) 총연출, 최준영(영산중) 음악감독, 손성목(해남중) 교사가 합창지휘를 맡았다. 문의 010-2013-6907.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월성 송헌동 반송’

한국 역사의 산증인 ‘거목’

손장선전 25일까지 데미화랑

데미화랑은 오는 25일까지 지역의 대표적인 원목화사인 손장선씨 작품 모음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손 화백이 격조 높은 색채로 그린 거대한 자연과 나무 등 모두 11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그의 개성과 회화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손 화백은 1990년대 이후 전국을 순례하며 한국의 풍광을 대담한 필치와 색감으로 담아 낸 작가다. 그는 특히 우리의 힘난했던 역사를 말없이 지켜보며 살아왔던 증인이자 목격자, 수호신인 당산나무, 왕버들 나무, 왕후박 나무 등에 주목했다. 캔버스에 오일로 그린 그의 나무 그림에는 연륜을 더해가는 자연이 분출하는 에너지와 삶의 조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나무의 큰 줄기를 굴곡지게 그려진 한국인들의 삶이 느껴지기도 한다.

완도 출신 손 화백은 제15회 금호미술상, 제10회 이증삼미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민족미술협회회 초대 대표를 지냈다. 문의 070-4388-950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툰

세계적인 현대무용가 홍신자 씨에겐 광주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 지난 2003년 자신의 대표작인 ‘웃는 여자’가 흥행을 확신했던 광주에서 ‘울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뉴욕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뉴욕타임스로부터 “무용언어의 표현영역을 확대한 수작”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게다가 전국 순회공연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었던 터라 이번이 없는 한 광주에서도 ‘전석매진’을 꿈꿨다.

발표한 전담 콘텐츠 종합계획에 따르면 아시아 예술극장은 오는 2015년 개관과 동시에 아시아 동시대 예술작품 80여 편을 연중 선보인다. 실험오페라, 현대 음악극, 록 퍼포먼스, 장소특정형 공연 등 용어도 ‘생소함’ 컨템포러리 공연예술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들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마니아적 취향’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연중 시즌제를 통해 80여 편을 무대에 올린다는 것도 걱정이다. 요즘 웬만한

레 미제라블 in 광주

하지만 그녀의 장밋빛 꿈은 옛 빛으로 변했다. 500석 규모의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은 관객이 절반도 들지 않았다. 마치 ‘이 빠진 것’ 마냥 들성 들성 비어 있는 객석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홍씨는 기자회견에서 “광주는 발레와 같은 전통적인 장르가 강한 것 같다”며 “왜 공연계 지인들이 ‘광주행’을 그토록 말렸는 지 이해가 갔다”고 씁쓸해 했다.

일반적으로 컨템포러리 댄스(현대무용)는 광주 뿐 아니라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다. 고정팬이 두터운 발레나 뮤지컬과 달리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다. 현대미술의 축제인 비엔날레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도 그런 이유다.

새삼스럽게 현대무용가 홍씨의 ‘아픈 기억’을 끄집어 낸 건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하 전당)의 콘텐츠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당내 아시아 예술극장의 콘텐츠다. 지난 16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무지컬 제작비가 100여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80여 편의 제작비를 어떻게 충당 할 지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십 여 편의 레퍼토리 가운데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서울이나 홍콩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을 굳이 광주에서 보게 하려면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전당이 ‘아시아 동시대 예술’이라는 명분에 갇혀 ‘광주다움’을 무시할 경우 홍씨가 당한 ‘굴욕’을 고스란히 겪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달 초 2013 광주 세계 아리랑 축제의 브랜드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다. 현대미술의 축제인 비엔날레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도 그런 이유다. 새삼스럽게 현대무용가 홍씨의 ‘아픈 기억’을 끄집어 낸 건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하 전당)의 콘텐츠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당내 아시아 예술극장의 콘텐츠다. 지난 16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편집국장·문화칼럼기자)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
|------------------|------------------|
| 본점 062)227-9940 | 충장점 062)227-9970 |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상표등록 : 41-0241299호

체인점 문의 ☎ 061-375-2383
HP. 010-6656-0002